



“**삽사리**와의
소중한 인연,
한국삽살개재단과
함께 만들어가세요”



오시는 길



재단법인 **한국삽살개재단**
The Korean Sapsaree Foundation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삽살개공원길 37

T 053.953.0370 **F** 070.8677.0370

E sapsaree2@naver.com **H** www.sapsaree.org



재단 한국삼살개재단
법인 The Korean Sapsaree Foundation

삼사리 양육 가이드

Sapsaree Guidebook
www.sapsaree.org



● 천연기념물 제368호 “경산의 삼살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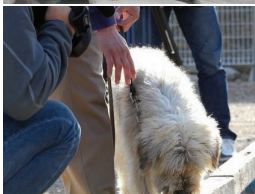
삼살개가 있는 곳에는 아귀도 일심 통한다

예부터 “사람을 해치는 기운[살(殺)]을 퍼낸다[삼(掃)]”는 의미를 가진 삼살개는 우리의 오랜 역사 속에서 집 안으로 들어서는 모든 잡귀를 물리치고 재액과 횡액, 침략과 도적 그리고 온갖 질병을 막아주는 액막이 문전 개로서의 신뢰와 믿음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일제 강점기 조선 총독부에 의해 군수견피 수집의 명목으로 대량학살을 당하며 멸종의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후 1960년대부터 끊임없이 이어져온 경북대학교 교수진 중심의 보존 노력은 마침내 삼살개가 1992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며 멸종 위기 극복의 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현재 삼살개는 (재)한국삼살개재단의 지속적인 활성화 노력으로, 일본의 끊임없는 역사 왜곡과 도발에는 국도를 수호하는 독도 지킴이로, 점점 훼손되어가는 우리 문화재를 지키는 흰개미 탐지견과 문화재 지킴이견으로, 애정이 메말라가는 아이들에게는 치료견과 반려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한국삽살개재단은

사람과 삽살개의 소중한 인연을 시작으로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세상 만들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목차

1. 삽사리 예방접종 및 양육 방법	04
2. 예의 바른 삽사리로 교육하기	06
3. 건강한 삽사리로 양육하기	12
4. 삽사리 양육시 유의사항	14
5. 회원권 교배/등록/분양 안내	17
6. 회원서비스 안내	18



1. 삽사리 예방 접종 및 양육 방법

견 명 (Dog Name)					
견 번 (Dog ID#)					
생 년 월 일 (Date of Birth)					
종 합 백 신 (DHPPL*)	출생 후 30일 경부터 2~3주 간격으로 5차 접종, 이후 연1회				
	제1차	제2차	제3차	제4차	제5차
	접 종 일 :	년	월	일	백신명 :
	다음 접종일 :	년	월	일	
광 견 병 (Rabies)	출생 후 3~4개월 경 첫 접종, 이후 연1회				
	접 종 일 :	년	월	일	백신명 :
	다음 접종일 :	년	월	일	
구 충 (Deworming)	생후 20일부터 5개월까지 월 1회 구충, 1세까지 3개월에 1회, 이후 6개월에 1회				
	마지막 구충일 :	년	월	일	
	다음 구충일 :	년	월	일	
심장사상충 (Heartworm)	하절기 동안 모기에 의해 감염됨으로 5~10월에 한해 월1회 예방약 복용 혹은 투여를 통해 감염 예방				
	마지막 예방일 :	년	월	일	
	다음 예방일 :	년	월	일	

*DHPPL : Canine distemper (홍역), Infectious canine hepatitis (전염성 간염),
Parvovirus (파보 장염), Parainfluenza (파라인플루엔자), Leptospirosis (렙토스피라)

| 예방 접종 및 양육 방법 |

먹이	급여량: 사료포장에 명시된 적정량과 횟수에 따라 급여하는 것이 과식으로 인한 설사나 장염을 예방하고, 정상적인 배변습관을 들이는데 도움이 됨. 통상적으로 연령에 적합한 사료 급여 시 분변이 너무 무르면 급여량이 과다한 것으로, 분변이 너무 굳으면 급여량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여 조절. 시 간: 연령에 따른 급여 횟수를 감안하여 아침부터 저녁까지 균등하게 시간 배분하여 급여. 용 변: 오전, 오후 규칙적인 산책을 통해 일정한 배변시간과 장소를 만들어 주거나 식사 후 거처와 떨어진 곳에서 배변유도.
목욕	하절기에는 월 2회, 동절기에는 월 1회 정도 애견용 샴푸를 이용해 몸, 다리, 얼굴 손으로 마사지하듯 미지근한 물로 목욕시키고 습기에 의한 피부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건으로 물기를 충분히 닦아낸 후 빗질과 함께 드라이어로 건조. 특히 눈과 귀에 물과 샴푸가 들어가 충혈이나 중이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털관리	목욕과 별도로 털이 엉기지 않도록 T자형 빗으로 주 3~4회 정도 속 털을 속아내 주고, 슬리커브러쉬로 털 고르기 해줌. 산책이나 운동 후, 핀 브러쉬를 이용해 몸에 묻은 이물질을 빗어내고 젖은 수건을 이용해 청결히 닦아줌. 빗질할 때에는 피부에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
번식	교배 대상: 한국삼살개재단에 등록된 순수혈통 삼살개 적정 시기: 암컷 18개월 이상, 수컷 24개월 이상 조기 번식: 교배 시점이 암컷 12~18개월(12개월 이하 등록 불가), 수컷 15~24개월(15개월 이하 등록 불가) 근친 번식: 부모견 기준으로 3대 내에 같은 견이 있을 시 등록 불가 교배 절차: 조기 번식 및 근친 번식의 방지를 위해 사전에 재단으로 확인요망





2.예의 바른 삽사리로 교육하기

강아지 교육

배변 훈련

1. 견은 본능적으로 잠자리를 청결하게 유지하고자 하기 때문에 강아지들이 잘 견게 될 때부터는 잠자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배변하도록 유도합니다.
2. 강아지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후, 어미를 따라 정해진 배변 장소로 이동시켜 배변할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데 보통 잠자리에서 떨어진 곳으로 데리고 가면 배변을 통해 안정감을 찾으려는 본성과 식사 후 배변 욕구가 일어나는 것이 합해져 이내 배변하게 됩니다.
3. 실내에서 강아지들을 관리하는 경우라면 식사 후는 물론이고 3~4시간 간격으로 마당에 꺼내 주어 실외에서 배변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식생활 습관

1. 원활한 배변 습관을 위해 규칙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사료를 급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규칙한 급여를 할 경우, 배변 욕구가 불규칙적으로 일어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2. 강아지의 급여량은 사료포장에 명시된 적정량에 따르는 것이 과식으로 인한 설사나 장염을 예방하고 정상적인 배변 습관을 길들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사회성 배양 교육

1. 견들은 집안에서만 생활할 경우, 정상적인 사회성이 발달하지 않아 소극적이거나 가족에게만 지나치게 의존적인 성향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으므로 어미젖을 땔 무렵부터 바깥 환경에 노출시켜 새로운 사람과 견들을 접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2. 삽사리를 입양해 기르는 경우, 새로운 가정에 빨리 적응하고 가족들과의 유대감을 높이기 위해 하루 1~2회 다소 지칠 정도로 산책을 시켜 견이 가족과 함께 걷는 시간을 통한 친밀감 형성과 환경 적응력을 높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3. 견이 성장해감에 따라 산책을 통한 운동량을 늘려주어 근육과 골격이 고루 발달할 수 있도록 해주고, 성견의 경우 견이 필요로 하는 정도의 운동욕구를 해소시켜 주기 위해 장시간 산책시키거나 자전거를 따라 가볍게 달리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4. 생활 전반에서 견과 함께 여가를 보내게 되면 자연스레 많은 사람과 낯선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형성되어 사랑 받는 반려견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기본 훈련 방법

산책 훈련

1. 견과 산책할때는 사람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견이 따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견들은 갖가지 냄새와 환경을 확인하려는 본성이 강해 마음대로 움직이거나 사람을 끌어 당기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던 방향을 자주 바꾸어 주거나 매일의 산책을 다르게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앉아’ 시키기

1. 주인을 상대로 매달리거나 장난을 치려 할 때에는 견에게 동작을 가르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훈련에 앞서 산책을 충분히 시켜 힘을 좀 빼주어 차분하게 만듭니다.
2. 견이 너무 지치거나 흥분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견의 오른쪽 또는 정면에서 ‘앉아’ 라고 말하고, 오른손으로 리드줄을 짧게 잡아 위로 당기고 왼손을 이용해 견의 엉덩이를 눌러주어 앉게 만듭니다.
3. 견이 앉은 상태를 유지하지 않고 곧바로 일어하려고 하면 얼른 다시 앉도록 해야하고, 고집이 센 견의 경우 몇 번이고 반복해 앉혀야 합니다.
4. 견을 앉히는 것이 원활해지면 ‘앉아’ 를 시킨 다음 몇 초간 머무르게 한 후, 칭찬하여 견이 앉아서 기다리는 것에 익숙해 지도록 합니다.

‘엎드려’ 시키기

1. ‘앉기’ 훈련이 가능해지면 앉은 상태에서 사람이 견의 뒤쪽에 위치해 ‘엎드려’ 라고 말하고, 견과 몸을 밀착시켜 눌러주면서 견의 앞다리를 펴주어 견이 엎드리도록 만들어 줍니다. 견이 엎드리게 되면 천천히 쓰다듬어 주어 칭찬해 줍니다.
2. 일반적으로 운순하고 먹이를 좋아하는 견의 경우에는 앉힌 상태에서 얼굴 아래에 먹이를 여러번 놓아주고 견이 먹으려고 할 때에 견의 정면에서 앞다리를 당겨주어 엎드리도록 할 수 있는데 견이 엎드린 상태에서 먹이를 더 놓아주어 엎드린 상태에서 보상이 따름을 인지 시켜 주어야 합니다.
3. ‘엎드리기’ 훈련은 견이 제압당하는 느낌에 거부반응을 표출할 수 있어 ‘앉기’ 훈련을 시킬 때 보다 좀 더 지친 상태에서 훈련하는 것이 수월합니다.





2.예의 바른 삽사리로 교육하기

기본 훈련 방법

‘기다려’ 시키기

1. 견을 앉히거나 옆드리게 한 상태에서 ‘기다려’라고 말하고, 일어서려고 할 때마다 자세를 유지하도록 하는데 이때 말이나 쓰다듬기 등의 칭찬을 하기보다는 불필요한 움직임에 통제가 따르고 원래의 자세를 취하면 통제가 없어진다는 것을 알게 하여 흥분하지 않고 차분하게 머무르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2. 견의 가까이에서 움직임을 통제해 견이 가만히 기다리게 되면 견에게서 조금씩 거리를 넓혀가며 견이 일어설려 할 때, 얼른 다가가 다시 자세를 유지하도록 만들어 먼 거리에서도 기다리도록 합니다.

이동장에 들어가기

1. 견을 이동장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견이 생활하는 공간에 이동장을 놓아 두어 견으로 하여금 이동장이 익숙한 물체로 여겨지도록 합니다.
2. 견이 이동장을 낯설어 하지 않게 되면 이동장의 윗면 뚜껑을 열어 제거한 다음 견이 들어가도록 유도하는데 거부감이 있는 경우 견을 안아 이동장에 넣은 다음 차분히 쓰다듬어 안정시켜 줍니다. 먹이를 좋아하는 견의 경우 이동장 입구에 먹이를 놓아두어 먹게 하고 점차 이동장 안쪽으로 먹이를 옮겨줍니다.
3. 뚜껑이 없는 상태에서 이동장에 잘 들어가게 되면 뚜껑을 닫은 상태에서 들어가도록 연습 시킵니다.

자동차에 태우기

1. 견을 자동차에 처음 태울 때에는 자동차의 진동이나 소음에 놀라지 않도록 시동을 끈 상태에서 사람이 함께 데리고 올라가 놀아주거나 먹이를 주면서 자동차의 실내공간이 익숙한 놀이장소로 느껴지도록 합니다.
2. 견이 자동차에 타는 것이 익숙해지면 문을 닫고 시동을 걸어 소리와 진동에 익숙하도록 합니다.
3. 시동을 켜 상태에서 견이 불안을 느끼지 않으면 짧은 거리를 천천히 이동시켜 익숙해지도록 하고 나중에는 이동 거리와 속도를 늘려 주도록 합니다.

문제 행동 예방 방법

지나친 관심과 애정 절제

견들은 조상인 늑대와 마찬가지로 유년기에 많은 놀이와 장난을 통해 사냥에 용이한 운동 능력을 만들어가는데 이런 놀이 행위는 성견이 되어가면서 적절히 조절해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유혹에 빠지는 것처럼 놀이 행위에 집착적인 상태로 발전할 수 있고, 장난을 무절제하게 받아주는 것은 견으로 하여금 자신의 주도에 의해 사람이 반응한다는 착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 해야 합니다.

식사 예절

견은 식사의 순서만으로도 무리 내 자신의 위치를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보다 견에게 먼저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좋지 않으며, 식사를 급여할 때 먹어도 좋다는 신호를 전달하거나 사람이 자리를 떠난 다음 먹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는 가족 중 한 사람만이 급여하지 말고, 교대로 주면서 교육시켜 가족전체가 식사를 통해 견의 상위에 있음을 인지시켜 주어야 합니다.

흥분 조절

가족들이 외출이나 직장에서 돌아올 때 견이 반겨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지만, 흥분해 있는 견을 자극할 수 있는 말과 행동을 날마다 반복할 경우, 견의 입장에서는 즐거움이나 반가움을 넘어 집착으로 발달할 수 있습니다. 견을 지나치게 흥분하도록 조장하거나 방치하게 되면 가족의 외출에 짚음과 혼란스러운 행동을 보이거나 혼자 있을 때에 물건을 물어 뜯거나 어지르는 행동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외출에서 돌아 올 때에는 물론이고 평상시에 견에게 지나친 장난을 걸거나 이미 견이 흥분해 있을 때에 관심을 주는 등의 행동은 자제해야 합니다.

짚음 방지

견이 짚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무리를 이루어 사는 늑대와 같은 견과 동물들의 경우 낮은 기척이나 침입에 대장이 나서서 살피고 판단하는 습성이 있는데 사람과 살아가는 견들의 경우에도 견이 나서서 짚는 행위는 야생에서 대장늑대의 경계역할과 같은 것으로 견 자신이 확신하고 판단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은 기척이나 손님의 방문 시 견이 나서서 짚거나 경계 하기 전에 가족 중 누군가가 먼저 나서서 견을 뒤로 물러나도록 유도하거나 앉거나 엎드리도록 요구해 사람이 주도 해야 할 상황임을 견이 인지하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문제 행동 예방 방법

공격성 제어

견을 사람처럼 양육하게 되면 견이 착각하여 가족에게 서열을 만들어 대하게 되어, 낮은 서열로 판단되는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항상 사람이 리더가 되어 사랑으로 양육해 주어야 합니다.

견이 가족을 포함한 사람을 공격하는 것은 위협을 받거나 두려움을 느끼는 상황을 제외하면 대부분 우위군성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견을 기르는 사람은 유년기 때부터 적절한 통제 훈련과 동시에 생활습관을 조절해주어 견이 자신의 기분대로 행동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견이 침대나 소파 등 높고 안락한 휴식공간에서 머무르도록 하는 것, 자주 안아주는 것, 지나치게 쓰다듬는 것, 물어 당기기 놀이 등은 견에게 우위군성이 생기도록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자제해야 합니다. 또한, 산책 시 앞장서서 끌어당기며 걷거나 흥분한 상태에서 놀아주는 행위 등도 하지 않는 것이 견이 주도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사람을 상대로 하는 우위적 공격성을 발휘하지 못하게 합니다.

특히, 일상 생활에서 ‘앉기’, ‘엎드리기’, ‘기다리기’ 훈련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견에게 사람의 요구에 순응하는 습관을 들임으로써 견의 리더가 사람임을 견 스스로 인식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이러한 훈련은 견주 뿐 아니라, 타인의 명령에도 견이 앉고 엎드릴 수 있도록 습관을 들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MEMO

Sapsaree
STORY

3.건강한 삽사리로 양육하기

건강 상태 확인 및 조치 방법

견의 행동과 컨디션으로 확인하는 건강상태.

1. 백신접종이 전혀 되지 않은 자견을 입양하였을 때에는 1차 접종부터 4차 접종까지 접종을 완료하고, 처음 접종시에는 면역력이 없으므로 동물병원에서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견이 항체가 생성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병원에서 전염병을 옮아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자견이 생후 7~12개월령에는 급격한 성장과 지나친 운동에 의해 고관절과 슬관절의 탈구나 골절이 쉽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체중조절과 운동이 필요하며 응급상황 발생 시에는 걷지 않도록 하고 신속하게 동물병원에 진료를 의뢰하여야 합니다.
3. 매일 사료 급여 시, 평상시 먹는 양보다 적게 먹거나 전혀 먹지 않을 때, 설사, 혈변, 구토를 할 때, 컨디션이 평상시 같지 않고 침울할 때에는 동물병원에 진료를 의뢰해야 합니다.
4. 견이 열이 나서 코가 마르거나 호흡기 질환에 감염되어 누런 콧물과 재채기를 하거나, 기침을 하고 침울하여 컨디션이 떨어져 있을 때에는 동물병원에 진료를 의뢰해야 합니다.
5. 산책이나 운동 후에 털 손질을 통하여 피부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눈 질환, 귀 질환, 잇몸 질환, 피부질환, 진드기 등 외부 기생충의 기생여부를 점검하여 문제가 있을 때 동물 병원에 진료를 의뢰하여야 합니다.



| 건강 상태 확인 및 조치 방법 | 약 먹이는 방법 |

약 먹이는 방법

알약 / 캡슐약 먹이는 방법

알약이나 캡슐약을 손가락에 쥐고 견의 입을 벌린 다음 입 안 깊숙이 넣은 후 물을 조금 먹여 약을 넘기도록 합니다. 이때 약이 기도로 넘어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가루약 먹이는 방법

알약을 그대로 복용하지 못하는 경우 가루로 갈고, 캡슐약의 경우 캡슐을 열어 약을 꺼내어, 급여하는 사료에 물이나 고기국물과 함께 섞어 먹이면 견에게 약에 대한 거부감을 줄여주며 복용시킬 수 있습니다.

시럽약 먹이는 방법

견을 정좌 시킨 다음 머리를 위로 45도 정도 올리고 견의 옆 입술을 벌려서 천천히 삼키는 것을 살피가며 먹입니다. 너무 세게 주입하면 이빨에 부딪쳐 흘리거나 기도로 넘어가 위험할 수 있으므로 유의합니다.



4. 삽사리 양육 시 유의사항

양육 시 유의사항

1. 입양해 온 삽사리는 장거리 이동과 낯선 환경에 대한 스트레스로 간혹 혈변, 설사, 식욕감퇴 등의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 2~3일 동안은 일반적인 사료 급여량의 절반 정도만 급여하여 환경적응이 덜 된 상태에서 배탈이나 소화불량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 삽사리 강아지는 식욕이 왕성하고 추위에 강한 편이지만, 늦가을부터 초봄에는 보온에 신경 써주어 추위로 인한 스트레스를 최소화 해주어야 합니다.
3. 삽사리는 성견이 되었을 때의 몸무게가 20kg이 넘는 중·대형견종으로, 발육이 왕성한 4~10개월령의 시기에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게 하거나 과도한 운동을 시킬 경우 관절에 무리를 주어 균형있는 발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천천히 걷거나 달리는 정도로 운동을 시켜야 합니다.
4. 삽사리는 선천적으로 주인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고 순종심이 강하지만, 가족들과의 원만한 관계 형성과 사회성 발달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4~5개월령부터 적절한 길들이기와 훈련을 통해 의정한 가족구성원으로써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5. 중성견의 경우 입양 후 2~3일 정도는 식욕이 부진할 수 있고 새 집과 가족을 인지하고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2~4주 정도는 인내심을 갖고 따뜻하게 대해주어 견이 부담감이나 외로움 없이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6. 삽사리의 털은 동절기에는 보온을 위해 많은 속 털이 밀생하고 하절기에는 체온 조절을 위해 속 털을 벗어내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자주 빗질을 해주어 청결한 피부와 피부건강을 유지시켜 주어야 합니다.
7. 삽사리는 침착하고 의젓한 성향의 견종으로 다른 견종에 비해 많은 운동량을 필요로 하지는 않지만, 산책과 운동을 자주 시켜 신체적인 건강유지와 무료함으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8. 삽사리는 자신과 가족을 지키려는 본능이 강해 낯선 사람들의 접근을 경계하기 때문에 출산 시 또는 포유기의 어미견, 치료 중인 견의 경우 안정된 장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교배 시 유의사항

1. 삽사리는 엄격하고 체계적인 혈통 관리가 이루어지는 견종으로 수정시기 동안 정해진 삽사리와 교배하였더라도 그 이외의 다른 견과 교미가 이루어 질 경우 연속적으로 수정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여 관리 하여야 합니다.
2. 암캐를 수캐의 거주공간에 데리고 가서 교배시키는 것이 자연교배가 이루어지는데 도움이 됩니다. 간혹 교배 경험이 없는 수캐를 암캐의 거주공간으로 이동시켜 수정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동한 견의 경우, 낯선 환경과 사람, 처음 만난 교배견으로부터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시간을 갖고, 안정된 공간과 분위기를 조성하여 관리하도록 합니다.
3. 교배 후 암캐의 생식기에서 출혈이 하루 이상 지속될 경우 생식기 내벽의 파열에 의한 것 인지 혹은 비정상적인 생리혈 인가의 여부를 수의사에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4. 교배한 암캐는 최소 1주일 동안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빠르게 달리기, 점프, 장애물 훈련 등은 제한하여 착상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5. 수캐가 생식기에 육종(작은 혹, 염종)이 있거나, 암캐가 생식기에 육종 또는 자궁축농증이 있는 경우에는 교배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출산 시 유의사항

1. 출산이 임박하면 어미견의 안정된 출산을 위해 낯선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자견의 암사, 낙하, 외상 등에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한다. 삽사리는 보통 출산 전 5~6시간 이상 식사를 하지 않으므로 아침식사를 하지 않은 경우, 당일 낮 시간에 출산할 가능성이 높고 저녁식사를 하지 않은 경우 밤 사이에 출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초산일 경우 어미가 새끼들을 잘 보살필 수 있도록 개와 친밀감이 높은 가족이 수시로 확인하며 도와주어야 합니다.
2. 보통의 개는 한 마리의 강아지를 분만하고 20분에서 1시간 이내에 다음 강아지를 분만하는데 뱃속에 분만하지 않은 강아지가 남아 있음이 확실한 상태에서 다음 분만이 1시간 이상 지연된다면 모견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살펴야 하고 2시간 이상 지연될 경우 수의사에게 문의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 태어난 강아지가 20~30분이 지나도 자력으로 어미 품을 찾아가지 못하거나 심하게 기력이 없어 보일 경우 어미에게서 분리시켜 인위적으로 마사지와 보온을 해 준 다음 어미에게 데려다 주어야 하고, 수시간 동안 어미젖을 먹지 못하는 강아지의 경우 강아지용 대용유로 인공포유를 해주어야 합니다.
4. 출산 후 3일 정도는 모견이 심리적으로 불안을 강하게 느끼는 시기이므로, 가능한 낯선 사람의 방문을 삼가고 강아지들이 어미에게 짓눌리는 일이 없도록 자주 확인 해야 합니다.
5. 출산한 강아지의 수가 너무 많아 대리모 견을 통한 포유를 해야 할 경우, 먼저 대리모 견의 젖과 분변을 강아지의 전신에 충분히 묻혀 대리모 견으로부터 공격받거나 배척당하지 않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6. 출산한 어미는 보통 당일에는 식사를 하지 않으므로 출산 다음 날부터 사료에 간이 되지 않은 닭고기나 소고기의 육수국물, 미역국, 또는 애견용 통조림을 혼합해 충분히 불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평상시보다 기름진 음식을 급여할 경우,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5.회원권 교배/등록/분양 안내

교배 가능 시기

부견과 모견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정상적으로 발육하여 성견(암컷 18개월 이상, 수컷 24개월 이상)이 되었을 때부터 가능합니다.

순수 혈통과 근친 확인

(재)한국삼삼개재단에 등록된 순수 혈통 삼삼개로 조기와 근친 여부를 확인 후 교배합니다.

교배 회수

우수자견의 출산 및 모견의 건강 유지와 무분별한 수의성 번식을 억제하기 위하여 암컷의 평생 출산 횟수를 3회로 제한합니다.

교배 연결

재단은 회원간의 교배를 권장하며 재단연구소에서 사육중인 삼삼개와의 교배를 원할 경우 재단이 지정한 교배비가 발생합니다.

※ 홈페이지 ▶ 삼삼개 분양 ▶ 신랑·신부구함

자견 등록

재단이 인정하는 교배를 통하여 출산된 자견을 모견주의 책임하에 재단 규정을 준수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자견 분양

등록된 삼삼개를 재단이 정하는 회원 및 관리규정을 준수하여 삼삼개의 혈통보존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는 애견인을 대상으로 분양합니다.





6.회원서비스 안내

혈통관리

한국삽살개재단에 등록된 순혈 삽살개를 분양받은 견주에게 견의 가계와 유전자지문이 기록된 혈통서를 발행합니다. 삽살개의 혈통 관리를 위해 “회원 및 삽살개 관리규정”에 따라 등록된 회원견들의 적절한 교배 연결, 자견 출산 및 등록, 자견 분양, 소유권 양도 등의 재단 고유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전람회

매년 봄에 개최되는 전람회에서는 삽살개의 우수함을 함께 자랑하고, 평가하며 삽살이를 사랑하는 많은 회원들이 즐거운 시간을 나누며 선진화 된 애견문화와 성숙한 애견인의 모습을 선보이는 뜻 깊은 행사입니다.

위탁

새로 이전한 경산의 삽살개 연구소 시설을 활용해 회원들에 한하여 위탁 서비스를 제공하여 반려견으로서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돕습니다.

미용

건강한 삽살개의 양육을 위해 필요한 털관리를 할 수 있는 적절한 애견샵을 찾지 못하시는 회원분들에게 저렴하게 미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삽살개의 양육, 건강, 교배, 출산, 분양, 양도, 훈련, 문제행동, 분실, 유기 등의 견에 대한 다양한 문의를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